

전 세계 한류 열풍 콘텐츠 수출액 14조원 돌파

문체부,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 발표... 수출액 119억2428만 달러 전년 대비 16.3% ↑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연간 콘텐츠 수출액이 1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조사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산업에 대한 국가승인통계다.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 대비 16.3% 증가한 119억2428만 달러를 기록, 우리 돈으로 14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국내 총수출액이 2019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 높은 성과를 보인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

가하면서 출판 61.1%, 영화 43.0%, 만화 36.3%, 방송 28.5%, 게임 23.1% 등 분야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81억9356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 7억1581만 달러, 방송 6억9279만 달러, 지식정보 6억9199만 달러, 음악 6억7963만 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8조2870억원으로 2019년 126조7123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유통 기반의 게임과 만화 분야에서 각각 21.3%, 14.7% 오르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는 53.6%, 애니메이션

13.0%, 음악 11.0% 등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액 규모는 방송 분야가 21조9647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출판 21조6488억 원, 지식정보 19조3734억 원, 게임 18조8855억 원, 광고 17조4218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9만9551개, 종사자 수는 64만 2086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4%, 5.9% 감소했다. 그중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음악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

“박물관에서 전통 문화 체험하세요”

국립전주박물관, 29일~2월 2일까지 작은문화축제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제26회 설 대보름맞이 작은문화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세시풍속과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박물관 옥외트리아에서는 투호놀이, 활쏘기 등을 체험하는 '전통민속놀이 마당'과, 맷돌과 절구, 도량형 등을 직접 만지고 이용할 수 있는 '옛 생활도구체험', 북, 장구, 쟁과리, 징 등 전통 악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물놀이체험'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전통놀이 오감'에서 전래놀이 체험부스를 설치, 조선시대 양반들이 했던 쌍륙놀이와 장치기, 자치기 등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29일 2시부터 서예가 이명순,

최동명 선생이 직접 입춘첩과 새해소망을 써주는 행사가 본관에서 진행되고, 1월 31일과 2월 2일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활용한 한지 풍경 만들기 체험행사가 예약제로 운영된다. 체험 예약은 25~27일까지 박물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와 체험료는 무료다. 다만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장인원이 시간당 50명으로 제한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이를 통해 잊혀져가는 세시풍속의 소중함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콘진원, 실감공연으로 '쇼미10' 페스티벌 공개

27일 'ON THE K X 쇼미더머니10 Festival' 온라인 공개 18명 래퍼 등 출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 '쇼미더머니 10'과 온라인 콘서트를 선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실감공연 시리즈 '온 더 케이(On The K)' 시리즈 네 번째 기획공연 'ON THE K X 쇼미더머니10 Festival'을 오는 27일 오후 10시 콘진원 음악채널 유튜브와 트위터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쇼미더머니 10의 우승자 조광일을 비롯해 신스, 비오, 쿤타 등 프로그램에 빛낸 래퍼들이 대거 출연, 인기 히트곡 라이브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아우르는 래퍼들의 추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승자 ▲조광일과 준우승자 ▲신스를 비롯, ▲비오 ▲쿤타 ▲베이스 ▲소코도모 ▲아닌딜 라이트 ▲머드 더 스튜디오 ▲365LIT ▲노스 페이스 ▲아우릴고트 ▲안병웅 ▲언오피셜 보이 ▲에이체스 ▲지구인 ▲카키 ▲태버 ▲

황지상 등 '쇼미10'을 빛낸 래퍼들이 대거 출연을 확정지어 반가움을 더한다. 여기에 래퍼 '낙살'과 '팔로알토'가 MC로 합류해 입담을 뽐낼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쇼미더머니10 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베스트 벌스' 등 7가지 주제의 특별한 시상도 예정되었다. 한편 실감공연 시리즈 'ON THE K'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KOCCA 뮤직 스튜디오'의 기획공연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확장현실(XR), 증강현실(AR), 메타버스, 입체음향 등 최첨단 실감공연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본부 김락균 본부장은 "이번 공연은 KOCCA 뮤직 스튜디오의 기술로 보다 현장감 있는 음향을 구현했다"며 "음향 강화 작업을 시도해 이전과는 다른 섬



세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도약센터 1층 방역 모습.

태권도진흥재단, 코로나 방역 선제 조치

2월 7일까지 태권도원 당일 방문객 입장 제한 · 일일 2회 방역 철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차단과 정부의 방역에 적극 동참하고자 24일부터 태권도원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선다. 먼저, 설 명절 전후 전국에서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 시설에 대한 일일 2회 집중 방역 등 방역 강도를 높였다. 특히 재단 임직원들은 주말을 포함해 일일 단위로 태권도원 내 방역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철중 방역에 나선다.

또한, 전지훈련과 태권스테이 참가자 등 예약이 완료된 단체에 대해서는 '백신 2차 접종 완료 확인서', 'PCR 음성 검사 확인서' 등 방역 패스 확인이 된 경우에만 입장을 허용하며 확진자 방문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설 명절 확산방지를 위해 2월 7일까지 당일 방문객의 입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앞서 공공기관 최초로 모범적인 방역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태권도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이미지를 더욱 더 확고히 해 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 · 춘천문화재단, '서로가 바라보는 공존 <ON GO> 네트워킹' 개최

전주와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양 지역 문화예술 교류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춘천문화재단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전주형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5명의 청년문화기획자와 지역 문화예술기획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가 바라보는 공존 <ON GO> 네트워킹'을 개최했다. 전주형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기획자 강연인 기획역량 아카데미와 선진 문화예술공간 탐

방 프로그램인 '예술공간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와 시그널페스티벌 개최지, 춘천커먼필드, 아틀리에노마드 등 춘천지역 문화예술공간을 함께 둘러봤다. 또, 춘천 '아트팩토리 북' (대표 황운기)에서 춘천지역 문화예술인과 교류하고, 강연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20일 진행된 강연에는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문화기획자가 가져야 할 작업의 관점과 태도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시 5개 문화예술단체와 춘천시 8개 문화예술단체가 각 지역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 참여 단체는 △우진문화재단 △문화통신사협동조합 △문화작업실 시간 △문화예술공작소 △포스댄스컴퍼니(이상 전주) △문화프로덕션 도모 △공공미터 △동네방네협동조합 △가치비디오 △소소아베 △소소 △당신의 들뜬 △사회적협동조합 무하(이상 춘천) 등이다. /김윤상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